Reader's Club

Set 4 <Story 5. Too much!>

Introduction

p.7

Too much! (투 머치!)

여러분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삶 전체가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?

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는 자신의 삶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맞는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. 항상 너무 이렇거나... 또는 너무 저렇거나... 아이의 삶에서 딱 한 가지만 들어맞습니다.

그것은 바로 뭘까요?

Read the story

p.8
내 고양이는 너무 말랐어 ...
어이! (고양이를 부르는 소리)
내 스쿠터는 너무 느려 ...
빵 빵! (경적 울리는 소리)

p.9
내 강아지는 너무 뚱뚱해 ...
쉬이! (강아지를 쫓아내는 소리)
내 걸상은 너무 낮아 ...

p.10
내 음식은 너무 뜨거워 ...
후! (입으로 음식을 식히는 소리)

내 음료는 너무 차가워 ...

p.11
내 원피스는 너무 길어 ...
내 양말은 너무 낡았어 ...

p.11
내 원피스는 너무 길어 ...
내 양말은 너무 낡았어 ...

p.12
내 모자는 너무 작아 ...
내 구두는 너무 꽉 껴 ...

p.13
너무 이렇고 너무 저래 -
하지만 우리 엄마는 딱 맞아.